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나 같은 조,중,고를  
12년 동안 같이다닌 동창생 친구가  
유방암 3기라는 소식을 오늘 여고동창회에서 들었다.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와 동창회를 하면서 만난 세월만 20년이 넘는다.

남편의 직장과, 아이들과,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과,  
은연 중 애기 속에 품겨나오는 그녀의 개성과...  
들은 바에 의하면,  
건강을 위해서는 철저한 식생활과 운동을 한 친구였다.  
거의 자연주의요법을 선호한다고나할까?  
아프다고 손쉽게 약을 먹거나 병원으로 조르르 달려가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나이에 비해 날씬한 몸매를 지녀서 옷태도 나던 친구였다.  
박학다식하고,소신이 분명하고,  
두 아들도 명문대를 졸업시켜 훌륭한 사회인을 만들었다.

그런 그녀가 친구들 수십명 중 유일하게 일순위로 암에 걸린 것이다  
다른 친구라면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다.  
긴 세월 살다보면 누구나 아플수 있고, 중명에 걸릴수도 있으니  
그러려니했을 것이다.

동창친구의 암은 곧 나와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남의 암이 아니었다  
63년을 똑같이 살아오면서,  
다들 건강이 동창회의 화두인 요즘 시대에 충격이 아닐수가 없었다.  
딱하고 가여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녀의 살아온 이력을 들여다봤다  
친구들 중 가장 먼저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고,  
그 세월이 십년 가까이 되었고  
명문대출신으로 좋은 직장의 남편이었지만 고지식했고  
직장생활 동안 애써 모은 거금을 주식인지, 사기인지로  
몽땅 털렸고. 그 속을 꿰뚫으면서도 맘에 안드는 남편에 대해  
남편의 ~도 발설하지 않고 참아낸 그녀가,  
암이라는 노후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씁쓸했다.

우리네가 남편 흉증 본다고해서 그 남편과 안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 남편이 매번 미운 짓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에 흠이가는 것은 더욱 아닐진대  
그리고 참고 참으며 치부를 한 방울도 드러내지 않은 결과가  
이것인가 싶었다.

의술이 날로 발전하는 이 좋은 세상에 현대의학의 혜택으로  
친구가 투병에 성공하고, 완치의 축배를 들기를 다 함께 기대해 본다  
건성으로 수십년 다닌 성당의 미사에서  
진심에서 우러난 기도를 그녀를 위해 바쳤다.  
그리고 그녀에게 <요즘의 유방암은 감기 수준이야 힘내!!>  
라고 문자를 날렸다.